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환동해 인식 및 접근에 대한 연구:

니가타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조사보고서』(1907)를 중심으로*

배규성**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일본의 남방 식민정책과 일본
제국주의의 구도 |
| II. 니가타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조사(1907) | IV. 결론: 일본의 환동해 소제국주의 |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전 이후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앞두고 동해와 인근 지역(환동해)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접근법을 살펴볼 것이다.

일본(니가타현)은 러일전쟁 이후 동해 연안(환동해)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1907년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섬의 남쪽 부분인 가라후토(Karafuto)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 후 니가타현은 니가타항과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간의 상업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환동해의)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이렇게 제안된 '동해 연안 지역'의 구조는 일본열도 주위에 해외 식민지들이 펼쳐져 있는 일본 식민지 제국의 지역구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러일전쟁 이후 니가타현이 환동해 연안에 구상했던 지역적 상업적 틀을 정치지리적으로 해석하여 '환동해 일본의 뼈대 제국주의'라 주장한다. 즉, 근대기 일본은 동해를 본토와 (국내 및 국외) 식민지를 연결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연구교수.

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동해 연안 지역은 일본 본토와 상업/무역과 경제 및 군사적 관계로 연결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일본의 동해 쪽 연안은 그런 목표로 개발되었다.

▪ 주제어: 러일전쟁, 니가타현, 환동해, 가라후토, 소제국주의

I. 서론

환동해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문화교류, 무역 및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호 협력/갈등 관계를 맺어온 육지로 둘러싸인 해양 지역이다. 19세기 말 조선이 불평등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여 중상주의적 제국주의정책을 시작할 시기에 일본이 동해와 인근 지역(환동해)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접근법은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논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승 이후 조선의 지배에 대한 일본의 최대 경쟁자인 청과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앞두고 동해와 인근 지역(환동해)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활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접근법을 살펴볼 것이다.

가라후토는 홋카이도의 일부(남부)로서 당연히 홋카이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의 상당 부분을 통해 일본의 동해 쪽 각 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의 최근의 몇몇 성과를 제외하고는(참고문헌 참고),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가라후토와 일본의 동해 쪽 각 현과의 통상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본(니가타현)은 러일전쟁 이후 동해 연안(환동해)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1907년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러시아 영토였지만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던 사할린섬의 남쪽 부분인 가라후토(Karafuto)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들 지역에서 일본의 최대 관심은 초기 어업에서 점차 임업(제지업 포함), 광산업 그리고 에너지(석유개발) 산업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카짐 쇼타로(Kazim Shotaro) 니가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사업 조사보고서(ウラ港樺太視察報告)』(新潟商工會議所編 1907)를 편집했다.

니가타현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뿐만 아니라 1907년 일본의 권리가 여전히 불안했던 러시아 극동 연해주 연안(오리가만)의 어부들을 조사하고, 이미 일본의 영토로 병합된 사할린 남부 가라후토의 상인들을 조사할 팀을 파견한 이유 중 하나는 가라후토에서 일본 영토를 설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장, 염색 및 제과의 광범위한 유통을 조사/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상인들은 그들의 상업 네트워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니가타항과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간의 정기적인 해운 직항을 개설했다. 니가타현은 이 조사팀이 이들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것을 기대했다.

본 연구는 1907년 니가타현이 지방정책의 일환으로 환동해 지역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니가타현은 (환동해의)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이렇게 제안된 ‘동해 연안 지역(the East Sea Rim Regions)’의 구조는 식민지 지역들이 일본열도 주위에 수립된 일본 제국의 지역구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 연안 지역에 존재했던 정치지리적 틀을 러일전쟁 이후 ‘환동해 일본 소제국주의’ 구도로 간주한다. 즉, 근대기 일본은 동해/일본해에 대해 본토와 국내 식민지(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및 국외 식민지(조선과 사할린 남부)를 연결하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동해 연안 지역은 일본 본토와 상업/무역과 경제 및 군사적 관계로 연결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일본의 동해 쪽 연안개발은 그런 목표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1. 러일전쟁(1904-1905년)과 환동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격하게 근대화한 일본은 1875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고(운요호 사건), 이 사건을 빌미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했다. 이 불평등조약으로 조선은 개국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동학혁

명)이 발생하자, 조선은 청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청이 이 요청에 응해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이에 대응해 군대를 보내면서 결국 청일전쟁(1894-1895년)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쟁은 시종일관 일본의 우세였다.¹⁾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인정받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3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 그 후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자,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교섭하게 된다. 고종은 민영환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군사와 재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고, 1896년 10월 민영환 특사 일행과 함께 러시아 군사교관 13명이 조선에 입국하여 궁궐 경비병 800명을 훈련시켰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를 불러들이려는 배후 조종자로 본 민황후를 시해하고 친일내각을 구성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高宗)은 1896년 2월 11일 경복궁에서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이듬해 2월 정동의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같은 해 10월 12일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고, 고종은 황제가 된다.

아관파천으로 조선의 왕 고종의 신변보호를 대가로 러시아는 조선에서의 많은 이권을 확보한다. 광산채굴권과 벌목권(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는 일본과 베버-고무라 협정(1896. 5), 로바노프-야마가다 협정(1896. 6), 니시이-로젠 협정(1908)의 3개의 협정을 체결한다. 이들 협정들은 형식상으로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밀조항을 통해 일본과 더불어 대한제국을 공동 관리 또는 공동 보호하는 내용이었다.

아관파천과 뒤이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성공(1898년 여순과 대련의 조차)은 영국과 일본의 접근을 이끌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영국인 맥리브라운(McLeavy Brown)을 대신하여 러시아인 알렉시예프(Kir Alexiev)를 탁지부(度支部) 고문으로 임명하자, 영국은 인천 앞바다에 군함을 보내 브라운이 총세무사와 탁지부 고문직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일본도 이를 지원했다. 영국과 일본은 1902년 1월 1차 영일동맹을 맺는다. 이

1)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해 허약한 국력을 그대로 보여준 청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영국에까지 계속 영토를 상실함으로써 책봉과 조공제도에 의해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붕괴된다(다카하시 요이치 2018, 53-57).

런 영일동맹은 1905년 러일전쟁 시 러시아 발틱함대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막고, 여러 지역에서 물과 연료와 음식의 공급을 방해하면서 일본의 승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²⁾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동안, 러시아는 1898년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면서 만주에서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러시아가 애로호전쟁(제2차 아편전쟁, 1856-1860년)에 편승해 획득한 연해주를 교두보로 삼아 시베리아 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만주와 조선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이자, 일본은 만주개방 문제와 압록강 벌목권 문제로 또 다시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1904년 2월 8일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러시아 함대를 어뢰로 기습 공격하고, 2월 9일에는 서울을 점령해 대한제국에 주재하던 전 러시아 외교관과 러시아인들을 추방했다(Пак Чон Хё 1997, 163).

이에 러시아는 여순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발틱해에서 태평양 제2함대와 제3전투함대를 구성해 보냈으나, 영·일동맹의 한 축인 영국이 러시아 함대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방해하자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도착할 무렵인 1905년 1월 2일 이미 여순항이 함락되어 이들 함대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일본은 이들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들 함대의 항로를 감시할 망루를 건설하고, 빠른 해저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1905년 2월 22일 서둘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1905년 1월 여순항이 함락 당하자, 태평양 제2함대 사령관 라제스트벤스키(З.П. Рожественский) 해군중장은 태평양 제3함대까지 통솔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전함, 철갑순양함, 순양함, 어뢰정을 비롯해 병원선 2척, 수송선 6척[까레야(Корея)라고 하는 석탄수송선도 포함]을 포함해 총 38척으로 구성된 러시아 함대는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에 진입했다.

오래전부터 마산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수시로 보도 받던 도고(東

2) 미국의 경제적 원조도 일본의 승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다카하시 요이치 2018, 115).

郷) 일본 해군제독은 러시아 함대가 남해에 출현했다는 무전을 받고 러시아 함대보다 3배나 많은 상선까지 포함된 총 121척의 함대를 동원하여 대마도 해역에서 그 동안 은밀히 추적해 온 러시아 태평양 제2, 3함대(일본은 ‘발틱함대’라 호칭)를 거의 전멸시켰다. 이 대마도 닛의 해전에서 라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이 승선한 사령선 ‘수보로프 공작(Князь Суворов)’호를 포함한 전함 4척이 침몰했고, 라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은 구출되었으나 중상을 입어 러시아 함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저녁 때까지 계속된 이 해전에서 러시아는 전함 8척, 장갑순양함 1척, 해안 방어용 장갑 순양함 1척, 순양함 4척, 보조순양함 1척, 어뢰정 5척, 수 척의 수송선을 상실했다. 19시경 라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은 제3함대 사령관 네바가토프(Н.И. Небогатов) 해군소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계속 항진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5월 28일 독도 앞 해상에서 일본 해군 함정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자, 러시아 함대의 지휘권을 인수 받은 제3함대 사령관 네바가토프는 마침내 항복했다. 뒤따르던 라제스트벤스키가 승선한 어뢰정도 항복하고 말았다(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ССР 1980, 437-438).

1905년 9월 5일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Jr) 미국의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 주에 있는 군항 도시 포츠머스에서 일본의 전권외상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와 러시아의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Сергей Юльевич Витте) 간에 포츠머스강화조약(Treaty of Portsmouth)이 체결되었다. 포츠머스강화조약의 내용(Tyler 1905, 564-568) 중 환동해와 관련된 조항은 제2, 9, 6조이다.

제2조,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서 우월적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본 제국 정부가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킴, 보호 및 통제 조치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조선에 있는 러시아 시민은 다른 외국의 시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즉, 그들은 최혜국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에 놓여질 것이다. 또한 오해의 원인을 피하기 위해 양국 고위급 당국자는 조려 간 국경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영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조치를 삼갈 것을 동의한다(조선의 동해안에 대한 우월적 지위 확보).³⁾

제9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에 사할린섬의 남부와 인접한 모든 섬들과 그곳의 공공시설과 재산을 영원히 양도한다. 양도된 영토의 북쪽 경계는 북위 50°로 한다. 그러한 영역의 정확한 정렬은 이 조약에 부속된 추가 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사할린 섬이나 인접한 섬의 각각의 소유지에서 요새화 또는 이와 유사한 군사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 그들은 또한 라페루즈 해협과 타타르 해협의 자유 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군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북위 50°를 경계로 사할린 남부와 인접 섬을 식민지로 확보).⁴⁾

제11조 러시아는 일본해, 오흐츠크해 및 베링해에서 러시아 소유의 해안을 따라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일본과 협상한다. 전술한 협상은 이미 해당 지역의 러시아 또는 외국 시민에게 속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러시아 해역에서의 어업권 확보).⁵⁾

-
- 3) ARTICLE II. The Imperial Russian Government, acknowledging that Japan possesses in Korea paramoun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al interests engages neither to obstruct nor interfere with measures for guidance, protection and control which the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may find necessary to take in Korea. It is understood that Russian subjects in Korea shall be treated in exactly the same manner as the subjects and citizens of other foreign Powers; that is to say, they shall be placed on the same footing as the subjects and citizens of the most favored nation. It is also agreed that, in order to avoid causes of misunderstanding,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abstain on the Russian-Korean frontier from taking any military measure which may menace the security of Russian or Korean territory.
- 4) ARTICLE IX. The Imperial Russian Government cedes to the Imperial Government of Japan in perpetuity and full sovereignty the southern portion of the Island of Saghalin and all the islands adjacent thereto and the public works and properties thereon. The fiftieth degree of north latitude is adopted as the northern boundary of the ceded territory. The exact alignment of such territor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dditional article II annexed to this treaty.... Japan and Russia mutually agree not to construct in their respective possessions on the Island of Saghalin or the adjacent islands any fortification or other similar military works. They also respectively engage not to take any military measures which may impede the free navigation of the Strait of La Perouse and the Strait of Tartary.
- 5) ARTICLE XI. Russia engages to arrange with Japan for granting to Japanese subjects rights of fishery along the coasts of the Russian possession in the Japan, Okhotsk and Bering Seas.... It is agreed that the foregoing engag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lready belonging to Russian or foreign subjects in

이로써 일본은 환동해의 패권 또는 제해권(Control or Command Of The Sea, 制海權)을 장악해 한반도 동해안에서의 우월적 지위는 물론 사할린 남부를 식민지로 확보하고, 러시아 극동 연해주 연안의 어업권까지 확보했다.

2. 테프트-카츠라 밀약(1905)과 일본의 북방 식민정책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다양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무역 및 영토 획득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일본도 ‘탈아시아론’으로 이 근대 식민지 세력에 동참했다. 새롭게 근대화된 메이지(明治) 정부는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조선으로 향했다. 일본은 조선을 청과 분리시킨 후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조선을 일본의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했다(Duus 1995).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6년 1월 일본은 미국에게 당한 그대로 전함 외교⁶⁾를 구사하여 조선이 일본 시민에게 치외법권을 부여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3개의 항구(부산, 인천, 원산)를 개방하는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 불평등조약에 따라 일본에 부여된 권리는 페리 제독의 일본 방문 이후 일본이 서구 열강에 부여한 권리와 유사하다. 이후 일본의 조선 내정 참여는 1890년대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더욱 증가했다.

1905년 5월 28일 동해해전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의 항복을 받아낸 일본은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과 비밀협정을 맺었다. 소위 말하는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William Howard Taft)와 일본 수상 카츠라(Katsura Tarō) 간의 ‘비밀각서(Taft-Katsura Memorandum, 1905. 7. 27)’가 그것이다. 이 두 사람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합의했다(Esthus 1959, 46-51).

those regions.

- 6) 당시 미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하여 캄차트카와 연해주 여러 해역에 걸쳐 수백 척의 포경선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포경선들의 수리와 식료품 조달을 위해 일본의 개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1837년과 1846년 두 차례 개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1852년 3월 제13대 미국 대통령 밀러드 펠모어는 다시 페리(Mathew G. Perry) 제독에게 명령하여 10척의 전함과 2,000여 명의 병사를 보내 일본의 무력 개방을 계획했다.

첫째, 그에 따르면, 일본의 외교정책의 근본 원리를 형성했으며 일본, 미국, 영국 간의 호혜적 이해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되었다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카츠라의 견해였다.

두 번째 이슈는 필리핀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태프트는 필리핀이 미국과 같은 강하고 우호적인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일본의 최대 이익임을 주장했다. 카츠라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선)에 관해, 카츠라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는 조선이 이제 막 끝낸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츠라는 조선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책은 전쟁의 논리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카츠라는 또한 조선은 혼자 남겨두면 다른 열강들과의 협정이나 조약을 조속히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카프라에 의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카츠라는 조선이 일본을 다른 대외 전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근대기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중국	일본	조선
시작	망허조약 (望廈條約, 1844)	가나가와조약 (神奈川條約, 1853)	제너럴셔먼호사건(1866) 조미통상조약(1882)
주목적	통상관계	태평양 고래잡이에 편의 제공	별다른 중요성 없었음
우선 순위	① 대중국정책은 대일본정책에 우선한다	② 대일본정책은 대조선정책에 우선한다	③ 대조선정책은 대일본정책에 따른다.
인식	잠재적인 거대시장 (대국)	중국 진출의 디딤돌	일본의 한반도 종주권 인정,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

결국,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구도에 따라 (<표 1> 참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의 대외팽

창 방향을 대륙 쪽으로 유도해서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지배권을 굳히고, 중국의 다가올 위협을 일본을 이용해서 막고, 러시아의 극동 내지는 태평양으로의 진출도 억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결국, 테프트-카츠라 밀약은 1908년 루트-다카히라 협약으로 재확인되었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일본의 대외팽창의 방향은 북쪽으로 정해졌고(북방정책), 조선을 발판으로 한 만주 침략과 동해에서의 러시아 극동, 사할린(가라후토) 및 쿠릴열도에서의 일본의 식민지 야욕을 확장시켜 나갔다.

II. 니가타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조사(1907)

1.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일본의 동해 연안 지역과의 관계

니가타현은 일찍이 동해 연안 지역을 하나의 상업적 지리적 틀로써 주목했고, 조사단을 파견하여 가라후토⁷⁾와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통해 가라후토(사할린 남부)의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했다. 사할린은 극동 연해주의 일부가 아니라 러시아의 행정권하에 있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극동의 섬으로서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북동부 지역인 홋카이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竹野學 2008, 155-185). 이 지역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주로 어업과 임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⁸⁾ 가라후토는 처음에는 주로 수산업이 중심이었

7) 남부 사할린의 가라후토 청(Karafuto Prefecture, 樺太府)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 남부의 일본 영토를 관장하는 일본의 행정구역이었다. 1905년 포츠머스강화조약을 통해 사할린섬의 50°N 이남 부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에 가라후토현이 설립되었고, 수도는 1905년 오오마리(大泊, 현재 코르사코프)에서 1907년 토요하라(현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옮겼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가라후토는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고, 법인으로서 가라후토 청은 1949년 6월 1일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1951년 이래로 사할린 남부는 소련(현재 러시아)의 사할린주(Sakhalin Oblast)에 속해 있다.

고, 일본인들도 19세기 초반부터 가라후토를 이용했다. 러시아로부터 양도 받은 지 10년이 지난 1915년까지 가라후토 수입의 60% 이상이 어업이었다. 그러나 어업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자회사인 오지 제지(Oji Paper)를 통해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던 미쓰이(Mitsui) 그룹과 같은 일본 대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던 임업 및 펄프 생산에 의해 추월당했다. 미쓰이는 또한 가라후토의 석탄 광산을 지배했다. 1930년 이전까지 석탄광산 개발은 열악한 수송시설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또한, 가라후토는 일본이 여전히 러시아의 소유로 있는 사할린 북부의 유전에 접근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초기 알렉산드로프스크(Alexandrovsk)에서의 러시아 백군 정부와의 협상, 나중에는 소비에트 정부와의 협상에서 미쓰비시(Mitsubishi) 및 쿠하라(Kuhara) 그룹을 포함하는 일본의 컨소시엄이 몇몇 사할린 유정의 개발권을 획득했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일본은 이 유정들에서 일본 국내 소비의 12%에 해당하는 일 년에 약 10만 톤의 원유를 가져갔다(Beasley 1991, 154-155). 또한 가라후토는 홋카이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의 상당 부분을 통해 동해의 각 현과 공동으로 일했다. 그러나 가라후토와 일본의 동해 쪽 각 현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일본 및 한국의 연구자는 거의 없다. 비록 노조에·타무라(野添憲治·田村憲一 1977; 1978)가 아키타현의 수산업과 임업에 대해 조사한 몇몇 문서 중 하나를 언급했지만, 본 논문은 니가타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니가타현은 1907년 통상의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가라후토를 조사할 팀을 파견했으며, 1907년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사업 조사보고서』를 편집했다(<표 2> 참조). 이 보고서는 니가타현의 정치 및 사업 엘리트들이 러일전쟁(1904-1905년) 후에 가라후토와의 통상 연결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문서 중 하나이다. 비록 니가타현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가라후토나 사할린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니가타현과 가라후토 간의 무역에 관한 일본의 귀중한 기록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니가타현 정부의 시각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Karafuto)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전술한 주제를 확인한다.

8) 최근에는 三木理史(2012), 中山大將(2014) 등 가라후토에 관한 몇몇 단행본들이 나왔다.

<표 2> 1907년 니가타 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내용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사할린	
내용	페이지	내용	페이지
개발	1	개발	179
기후	18	지리적 특성	187
위치	20	기후	191
항구	22	교통	192
도시화 지역	23	어업	200
교통	29	경작지	220
일본인 거주자	50	광업	233
어업	55	농업	245
광업	72	가축사육	251
농업	77	임업	253
가축사육	83	상업	260
임업	86	금융	268
상업	89	도시화 지역	270
금융	158	보건	277
보건	177		

▪ 新潟商工會議所編(1907)

한편, 무라비요프 반도 말단의 균형 도시였던 블라디보스토크는 동해에 면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일본의 여러 지역과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규슈 지역, 호쿠리쿠 지역, 니가타현과 깊은 상업적 유대관계를 맺어 왔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청 왕조(1644-1912년)의 영토였지만 러시아 제국(1721-1917년)은 1860년(북경조약에 의해) 그것을 병합했다.

2. 메이지 시대(1868-1912년) 니가타현의 조사팀

(1) 니가타현의 경제 상황

니가타는 봉건시대의 물적 유통기지였지만, 메이지 정부가 일본열도의 태평양 지역에서만 철도망을 건설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으로 미개발

된 지역을 의미하는 ‘우라 니혼(裏日本, Ura-Nihon)’의 일부로 취급되었다(阿部 恒久 1997). 니가타현은 일본에서 1886년에 도쿄현 다음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지만, 1901년에는 3위로 하락했다. 니가타현에서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일본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1900년경의 지역인구의 순 유출을 야기했다(MIKI 2016, 81).

일본 중부의 동해 측 호쿠리쿠 지방에 위치한 니가타항은 해외로의 무역을 빠르게 시작했다(橋本 哲哉 1990, 93-120). 미쓰비시 그룹(Mitsubishi Group)과 협조하여 활동한 니가타 종합상사(Niigata Bussan Kaisha)는 1879년에 블라디보스토크와 교역을 시작했지만, 그 양이 지리적으로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어떤 관심도 끌지 못했다. 니가타 상공회의소는 대략 1881년에 설립되어, 도시에 항구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메이지 시대(1868-1912년)에 대형선박이 시나노강 어귀에 입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니가타항을 처음으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新潟商工會議所編 1906, 4). 그러나 정부는 니가타항만의 건설을 조사만 하고 건설하지 않았다.

1880년대 후반에 연어와 송어 어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 간의 무역 관계가 진전되었다. 오이에 쇼엔(Oie Shosen)은 1896년 일본 정부의 보조금으로 니가타(Niigata), 하코다테(Hakodate), 오타루(Otaru), 가라후토(Karafuto) 및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사이에 정기선을 건조 및 운영했다(新潟縣編 1988, 573-574). 1904년경 니가타항에서 나오는 무역의 대부분은 수산물과 어업장비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상인들은 연해주보다 연어와 송어를 구입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인 가라후토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라후토로부터 이들 생선의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했다(MIKI 2016, 81).

일본과 러시아 극동 간의 무역 수지가 일반적으로 1897년에 균형을 이루었지만, 일본의 수입은 20세기에 처음으로 북부 해역의 어획량의 증가로 인해 수출을 초과했다. 그 이유는 석유 및 수산물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쌀의 양은 감소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과일과 석탄의 수출량이 증가했다. 감귤류를 다룬 미야즈항(교토부)과 쓰루가항(후쿠이현), 서양 의복을 다루는 쓰루가항, 석탄, 사과, 맥주를 다루는 오타루항은

이들 항구들을 통과하는 상품의 금액의 관점에서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낮은 순위에 있던 니가타항은 수입 초과 이후 북부 해역의 수산업 증가로 인한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떨어졌다(MIKI 2016, 81).

제정(짜르)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폐지하고, 중국 대련항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간의 교역량은 유지되었다. 태평양 지역의 고베항과 요코하마항은 많은 섬유를 수출했지만, 일부 야채와 과일을 수출한 동해의 항들은 이익이 있었다(MIKI 2016, 81).

(2) 니가타 직업 조사팀의 조사 목적

니가타시와 사도섬(니가타현)의 자본가들에 의해 1885년 5월에 설립된 에츠사 기선(Etsusa Kisen)은 니가타와 사도섬의 료쓰 사이 그리고 료쓰와 하코다테 사이의 노선을 개설했다. 에츠사 기선이 일부 노선을 확장하고, 니가타항을 기지로 만든 이후, 이 회사는 그 당시 일본의 5대 대형 해운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橋正隆編 1947).

그러나 니가타의 무역 파트너들은 니가타항만 무역의 대부분이 수산물과 어로장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니가타항이 더욱 발전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직항이 결정되었다. 니가타항의 교역(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로의 항로는 크루즈가 아니라 직항이 되었다.

1907년 니가타현 의회는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직항을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⁹⁾ 에츠사 기선(Etsusa Kisen)은 니가타항을 개발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블라디보스토크

9) 일본은 조선에 일본 통감부가 설치된 1905년 9월 11일 시모노세키항에서 관부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를 출항시킨다. 이 정기연락선의 개통은 식민지 조선과 중주국 일본 간에 본격적으로 착취와 약탈을 위한 혈맥을 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주강현 2005, 233-236).

행/발 4차례 운항을 시작했다. 그 결과, 니가타현 상업학교의 학생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소풍 여행을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붐(Bradivostok Boom)’이 일어났고, 니가타현에서는 무역회사와 러시아 영사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니가타현 직원은 의회 구성원 중 일부가 이런 항해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보고서를 출판했다.

오사카 쇼엔(Osaka Shosen)은 동해 주변의 크루즈를 실시했고, 오이에 쇼엔(Oie Shosen)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쓰루가와 블라디보스토크 간 직항을 개설했다. 그러나 에츠사 기센(Etsusa Kisen)은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직항 노선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현으로부터의 보조금 중단으로 1913년 에츠사 기선이 이 항해를 중단한 후, 니가타와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직항은 1926년 직전에 복원되었다(MIKI 2016, 82).

(3) 직업 조사의 여정과 내용

니가타현 직업 조사단은 1907년 7월 16일 니가타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의 항해를 시작했고, 24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직업 조사팀은 가라후토에 먼저 가려고 계획했지만, 항해 계획을 변경하여 오리가 만(Origa Bay)으로 갔다. 많은 팀원들은 거기에서 어업을 조사하기를 원했다. 팀은 26일 저녁 오리가 만에서 출발하여 28일 새벽 오타루에 도착했고, 29일 출발, 31일 코르사코프항에 도착한 후, 8월 1일 오토마리로 이동했다.

그들은 오토마리(Otomari)의 상점에서 니가타현의 일부 제품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오토마리와 많은 일본인이 이주한 스즈야 평원의 블라디미로프카(Vladimirovka)까지 운송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니가타에서 가라후토까지의 당시 유통경로가 동해 쪽의 오타루를 통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블라디미로프카에 살고 있는 니가타 출신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니가타에서 홋카이도로 이주했고, 그들 중 얼마간은 홋카이도에서 가라후토로 이주했다. 니가타 출신 이민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보다 가라후토에 더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니가타의 제품은 블라디미로프카와 마오카(Maoka) 사이의 도로가 아직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오타루에서 집하/배분되어 운송하기가 어려웠다. 조사

팀이 오토마리와 블라디미로프카를 본 후, 8월 3일에 출발하여 오타루와 하코다테를 경유하여 10일 니가타에 도착했다.

<그림 1> 1907년 니가타현 직업 조사팀의 이동 경로



▪ MIKI(2016, 83)

(4) 조사팀 보고서에 나타난 가라후토의 산업 개요

1907년 니가타 상공회의소의 보고서(新潟商工會議所編 1907)에 따르면, 1920년경 가라후토 지역 일본인 인구는 약 48,000명이었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인 대부분은 규슈 출신이었다. 그러나 니가타현 출신의 이민자는 25명에 불과했다. 더 적은 수의 이민자를 보낸 현은 이시카와, 시마네,

아오모리뿐이었다.

190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인은 약 3만 7000명이었지만, 블라디미노프카에서는 약 1,000명에 불과했다. 가라후토의 대부분의 일본인 거주민들은 러일전쟁 전에 일본의 동북지방과 홋카이도에서 온 어부들이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 이주한 사람의 약 60%가 니가타현 출신이었다(MIKI 2016, 82).

① 농업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서는 농업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라후토는 홋카이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개간지(reclamation areas)를 가지고 있었지만, 홋카이도와 러시아 극동보다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훨씬 엄격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는 모두 농업(재배) 목적으로 니가타에서 이주하기에는 빈약한 곳으로 여겨졌다(MIKI 2016, 83).

② 어업

니가타현 출신의 일본 개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산업에 종사했다. 그들은 또한 18세기 후반 어업원정 이후에 어장이 개설된 가라후토의 해안까지 갔다. 더 숙련된 많은 일본인 어부들이 러시아 극동의 해안으로 몰려들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이들 어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느꼈다. 가라후토 주변의 어장은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방되어 있었지만, 니가타현은 그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조사팀이 오리가만을 방문한 목적은 어업규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MIKI 2016, 83).

③ 상업

스기우라 상점(상업회사)과 같은 일본 기업과 마쓰다 은행¹⁰⁾은 블라디

10) 일본 상인들은 러일전쟁 이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사를 운영했다(原 暉之

보스토르크에서 매우 번영했지만, 도시는 예상외로 일본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니가타현에 비해 일본 상인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가타현에서 블라디보스토르크로 수출되는 가장 선호되는 제품은 쌀, 간장, 배였다(MIKI 2016, 83).

블라디보스토르크로 들어오는 쌀의 대부분은 한국과 규슈 산이었지만 니가타현으로부터의 쌀에 대한 수요는 일본인 거주민이 그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증가했다. 그러나 니가타현 출신의 상인들은 1901년에 관세제도로 인해 쌀 수출을 중단했다. 그 후 그들은 탈곡하지 않은 쌀을 수출하고, 시장을 넓히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간장은 처음에는 나가사키현 산이었지만, 니가타에서 블라디보스토르크로의 정기 항로가 시작된 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니가타현산 간장이 인기를 끌었다. 니가타와 블라디보스토르크 사이의 대부분의 무역이 식량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기 항해로 빠른 수송을 제공해야 했다(MIKI 2016, 8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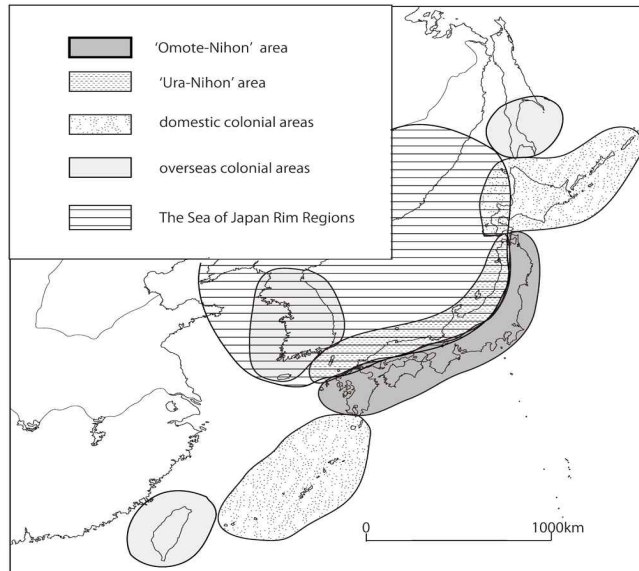
가라후토에는 상인이 거의 없었다. 일본산 제품으로 대부분 간장이 팔렸다. 오타루 제품은 간장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간도 지방과 니가타현 간의 경쟁에 있었다. 오타루는 정기적인 항해로 간장을 더 잘 순환시켰기 때문에 니가타현은 이러한 항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블라디보스토르크와 가라후토 지역에는 간장뿐만 아니라 염색과 직조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니가타현이 그랬던 것처럼 동해를 가로질러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항해를 양측 모두 기대했을 것이다(MIKI 2016, 84).

(5) 니가타현과 환동해 지역

니가타 상공회의소는 러일전쟁 이후 1906년 『홋카이도 경제 조사보고서(北海道視察報告)』(新潟商工會議所編 1906), 1907년 『블라디보스토르크와 가라후토 경제 조사보고서(ウラ港樺太視察報告)』(新潟商工會議所編 1907), 1911년 『한국과 블라디보스토르크의 경제 조사보고서(朝鮮視察報告-附ウラジオストク港)』(新潟商工會議所編 1911)를 편집했다.

1998, 261-263).

<그림 2> 1910년경 일본의 지역적 구조



• MIKI(2016, 85)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조사팀의 파견 목적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뿐만 아니라 1907년 일본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어업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가라후토는 일본 제국 영토의 일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사팀은 어업권을 관찰할 필요가 없었다. 상인들을 조사한 주요 목적은 간장의 광역 유통과 염색 및 직조 사업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에츠사 기센이 해운사로서 니가타항에서 동해의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가라후토까지 항해하는 직항노선을 설립했었다면, 니가타현은 무역을 더욱 확대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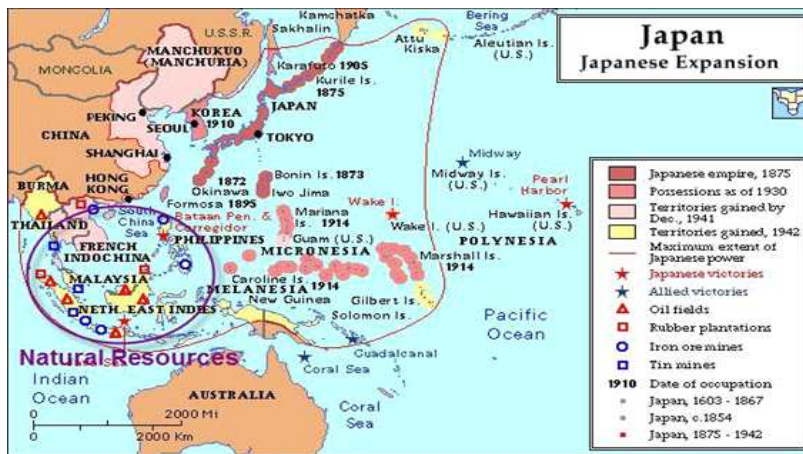
아베(阿部 恒久 1997)는 일본이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으로 발전된 부분인 '오모토-니혼(Omote-Nihon)'과 동해 연안의 미개발 지역인 '우라 니혼(Ura-Nihon)' 그리고 및 국내 식민 지역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및 해외 식민지(1910년 이후 조선, 1905년 이후 가라후토)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했다(<그림 2> 참조). 본 논문은 니가타현이 1907년에 환동해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할 목적으로 조사팀을 파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니가타현이 제안한 '동해 연안'의 지역적 틀은 일본열도 주변에 식민지가 수립된 일본

제국의 지역적 틀과 유사하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니가타현의 ‘동해 연안 지역’의 지역적 틀은, 일본인 학자도 주장하듯이(三木理史 2012), ‘환동해 일본 소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Ⅲ. 일본의 남방 식민정책과 일본 제국주의의 구도

일본 식민지 제국¹¹⁾은 1895년부터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제국에 의해 설립된 해외 식민지로 구성되었다(Peattie 1988, 217).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대만과 조선 등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사할린 남부는 1905년 가라후토(Karafuto) 현으로 개편되어 일본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그림 3> 일본의 해외 식민지 팽창(1875-1942년)



• Grolier Interactive Inc.(1996)

11) 일본 제국주의의 해외 식민지 확장은 크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분수령으로 하는 메이지 시기(Meiji era, 1868-1912년), 제1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소련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이쇼 시기(Taishō era, 1912-1941년), 그리고 태평양 전쟁 시기(Pacific War, 1941-1945년)로 나뉘볼 수 있다.

1895년 이전 일본이 취득한 최초의 해외 영토는 일본열도 주변 바다의 섬들이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일본은 본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난포(Nanpō), 류큐(Ryukyu), 그리고 쿠릴(Kurile) 열도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였다(Peattie 1988, 224). 1865년 7월 6일 창간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간지 중 하나인 *The Nation*은 만주로 팽창해야만 하는 일제 식민지주의의 당시의 여건을 잘 묘사했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지만, 옛날의 조흔 풍습은 일본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현재의 인구 증가율은 금세기 중반 전까지 수억 명의 인구를 양산할 것이다. 타국으로의 진출이 실질적으로 차단당하고, 포모사(대만)의 대부분이 이미 점령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자연스럽게 조선과 만주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들 중 조선은 그 제한된 면적과 현재 인구 때문에 부분적인 안도감만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주 북부 지역은 인디언들이 자유롭게 확보하던 때의 미시시피 계곡의 대초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이 여전히 자연 상태로 존재한다.”(*The Nation* 1902/01-06, 187)

한편, 1895년과 1945년 사이 평후(澎湖) 열도(the Pescadores)를 포함하는 대만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국이 시모노세키조약에서 대만성을 일본에 양도한 후 일본 제국의 속국(a dependency)이었다. 단명한 포모사저항정부(the Republic of Formosa resistance movement)는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타이난의 함락으로 일본의 점령에 대한 대만의 조직적인 저항은 끝이 났고, 대만은 50여 년의 일본 통치기로 접어들었다. 대만을 일본 식민지 제국에 합병하고 통합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본의 ‘남방정책(Southern Expansion Doctrine)’을 이행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 제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거의 저항 없이 서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북마리아나군도, 캐롤라인군도 및 마셜군도)를 재빨리 장악했다. 전쟁이 끝난 후 베르사이유 조약은 적도 북쪽의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독일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점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제연맹은 난요현(南洋廳, Nan'yō Chō)으로 알려진 일본 행정기구에 이들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권을 주었고,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총독의 지위가 만들어졌다.¹²⁾ 일본에 대한 남태평양 위임통

치령의 주요 의의는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해로(sea lanes)를 지배하고 선박에 대한 편리한 보급 기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위치였다. 일본 제국 해군은 1930년대에 남태평양위임통치 섬들에서 비행장, 요새, 항구 및 기타 군사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여, 미국에 의한 잠재적인 침략에 대항하여 일본 본토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간주했다.

내만주(Inner Manchuria)는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의 일본 승전 때까지 러시아의 영향권하에 있었다. 1906년 일본은 여순항(Port Arthur)까지 남만주 철도를 부설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혁명 이후의 혼란으로 일본은 일시적으로 외만주(Outer Manchuria)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1925년까지 이 지역은 다시 소비에트의 통제로 돌아갔다. 내만주는 중국 군벌 장 쩌오링(張作霖, Zhang Zuolin)의 통제로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일본의 후원을 받았지만, 일본 관동군은 그가 너무 독립적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그는 1928년 암살당했다. 일본은 1931년 만주를 공격했고, 그 구실은 일본 군부에 의해 설계된 만주사변(Mukden Incident or Manchurian Incident)이었다(Duus & Hall 1989, 294; Hunter 1984, 120). 그 후 이 지역은 중국 통제로부터 분리되었고, 일본의 꼭두각시인 만주국이 창설되었다(Yamamuro 2006, 116-117).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 Puyi)는 1932년에 국가원수, 2년 후 만주국의 황제로 선포되었다. 1930년대 일본인들은 만주국을 식민지화했다. 일본은 1935년 동중국 철도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구입했고, 토지는 몰수하여 일본인 농부들에게 재분배했다. 지역 농민들은 재배치되거나 소규모 토지의 집단농장 단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만주국은 중국을 침략하는 기지로 사용되었다.¹³⁾

12) 국제연맹의 남태평양위임통치령은 1947년 7월 18일 태평양 제도의 신탁통치 지역(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을 설립한 유엔 신탁통치협정(United Nations trusteeship agreement)에 따라 미국이 이들 섬들의 통치를 책임지는 안보리 결의안 제21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Ponsonby-Fane 1962, 346-353).

13) 1939년 여름 만주국과 몽골인민공화국 간의 국경 분쟁으로 칼킨 골 전투(Battle of Khalkhin Gol)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이 무력분쟁의 핵심전투를 몽골과 만주국의 국경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을 따서 ‘노몬한 사건(Nomonhan Incident)’이라

1930년대 초 만주 침략과 함께 일본은 정복 지역에서 꼭두각시 정권/국가의 수립과 지원 정책을 채택했다. 이런 형태로 일본은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던 많은 국가를 통제하며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대동아공영권(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을 구축했다.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영토에 대한 식민지 통제는 1945년 연합군이 일본을 패배시킨 후에 끝났다.

IV. 결론: 일본의 환동해 소제국주의

일본(니가타현)은 러일전쟁(1904-1905년) 이후 본격적인 조선 침략과 대륙 침략을 염두에 두고 1907년 동해 연안(환동해)의 북동쪽 지역인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섬의 남쪽 부분인 가라후토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니가타현이 이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한 이유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은 이 지역의 어업과 상업, 그리고 이후에는 임업, 제지, 광업 및 에너지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기초조사로써 니가타현은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에서 일본의 간장, 염색 및 제과 제품의 광범위한 유통을 조사/기록했다. 일본 상인들은 이 지역에 그들의 상업 네트워크를 발전시킴으로써 니가타현과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간 정기적인 직항을 설치하여 일본의 환동해 시장의 일부로 확립했다.

본 논문은 1907년 니가타현이 지방 차원의 중상주의 제국주의정책의 일환으로 환동해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에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본 지방정부 차원의 소제국주의를 확인한다. 중상주의를 추구하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일본이 개항했을 때에도 일본은 왜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적인 소규모 중계무역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주강현 2005, 278-279), 근대화 이후 산업발전으로 면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에서의 비약적인 생산량

불렀다. 이 전투에서 소련과 몽골 연합군은 만주국 군대에 의해 지원된 일본 관동군을 격파했다.

증가는 해외 식민지 시장의 확보를 통해 일본의 대외무역량을 증가시키는 추세였다(Beasley 1991, 122-141). 이런 중계무역의 진통과 초기 산업화의 물결이 러일전쟁의 승리라는 동력을 추진받아 일본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지방정부인 니가타현도 (환동해의) 지역적 관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이렇게 제안된 ‘동해 연안 지역(the East Sea Rim Regions)’의 구조는 1장과 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열도 주위에 해외 식민지들이 펼쳐져 있는 일본 식민지 제국의 지역구도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러일전쟁 이후 니가타현이 환동해 연안에 구상했던 지역적 상업적 틀을 정치지리적으로 해석하여 ‘환동해 일본의 뼈대 제국주의’라 주장한다. 즉, 근대기 일본은 동해에 대해 본토와 (국내 및 국외) 식민지를 연결하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해 연안 지역은 일본 본토와 상업/무역과 경제 및 군사적 관계로 연결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일본의 동해 쪽 연안개발은 그런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다카하시 요이치 (2018). 『전쟁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정학』. 김정환 역. 시그마 북스.
- 주강현 (2005).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웅진지식하우스.
- Beasley, W. G. (1991). *Japanese Imperialism, 1894-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us, Peter (1995).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us, Peter and Hall, John Whitney (1989).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thus, Raymond A. (1959). "The Taft-Katsura Agreement: Reality or Myth?"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31. No. 1, pp. 46-51.
- Hunter, Janet (1984). *Concise dictionary of modern Japanese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KI, Masafumi (2016). "A Study of Karafuto in the Sea of Japan Rim Region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by Considering Reports of the Vocational Inspection Team from Niigata Prefecture, Japan."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Series B*. Vol. 88. No. 2, pp. 80-85.
- Peattie, Mark R. (1988). "Chapter 5 -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nsonby-Fane, Richard (1962). *Sovereign and Subject*. London: Ponsonby Memorial Society.
- Tyler, Sydney (1905). *The Japan-Russia war;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war in the Far East, the greatest conflict of modern times*, Harrisburg: The Minter Company.
- Yamamuro, Shin'ichi (2006). *Manchuria under Japanese domination*. Trans. by Fogel, Joshua A.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Пак Чон Хё (1997).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 Корея (1904-1905)*. Москв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ССР (1980).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Воениздат.

- 橋本 哲哉 (1990). “戰前期北陸地域を中心とした對岸交流觀の檢討: シベリア・極東部を對象として.” 『金澤大學經濟學部論集』. 10卷. 2号, pp. 93-120.
- 橋正隆編 (1947). 『佐渡航海史要』. 新潟: 佐渡汽船.
- 三木理史 (2012). 『移住型植民地樺太の形成』. 東京: 塙書房.
- 新潟市 (1969). 『新潟開港百年史』. 新潟: 新潟市.
- 新潟縣編 (1988). 『新潟縣史(通史編7, 近代2)』. 新潟: 新潟縣.
- 阿部 恒久 (1997). 『「裏日本」はいかにつくられたか』.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野添憲治・田村憲一編 (1977). 『樺太の出稼ぎ』. 林業編. 秋田縣: 秋田書房.
- 野添憲治・田村憲一編 (1978). 『樺太の出稼ぎ』. 漁業編. 秋田縣: 秋田書房.
- 原 暉之 (1998). 『ウラジオストク物語: ロシアとアジアが交わる街』. 東京: 三省堂.
- 竹野學 (2008). “樺太.”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 日本植民地研究會編. 東京: アテネ社, pp. 155-185.
- 中山大將 (2014). 『亞寒帶植民地樺太の移民社會形成: 周縁的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植民地イデオロギー』.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 기타

- The Nation*. Vol. LXXIV. from January 1 1902 to June 30 1902. New York: New York Evening Post Company.
- 新潟商工會議所編 (1906). 『北海道視察報告』. 新潟商工會議所.
- 新潟商工會議所編 (1907). 『ウラ港樺太視察報告』. 新潟商工會議所.
- 新潟商工會議所編 (1911). 『朝鮮視察報告-附ウラジオストク港』. 新潟商工會議所.

| 논문투고일 : 2018년 02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02월 21일 |

| 게재 확정일 : 2018년 03월 0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1 (2018)

**A Study on Japanese Perception and Approach
to the East Sea Rim Regio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Focused on *Report of the Vocational Inspection Team
from Niigata Prefecture*(1907)**

Kyusung BAE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perception and approaches to the East Sea/Sea of Japan Rim Region in modern times, namely how Japan tried to use the East Sea and the surrounding area for a full-scale invasion upon the continent after it defeated its greatest competitors over the domin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In 1907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Niigata prefecture) dispatched an investigation team to Vladivostok in Russian Far East and Karafuto,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Island in order to inspect not only the merchants but also the fishermen focused on the area of the East Sea. One of the reasons for the Niigata investigation team wa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se areas a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Japanese territory in Karafuto.

Niigata Prefecture proposed a regional framework for developing a commercial network between Niigata Port and Vladivostok and Karafuto. The proposed structure of the 'the East Sea Rim Regions' is strikingly similar to the territory of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where

overseas colonies spread around the archipelago.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petit Japanese imperialism of the East Sea Rim Region’ as a politico-geographical interpretation of the regional commercial framework that Niigata prefecture conceive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other words, modern Japan perceived the East Sea as a spatial mediator of interactions connecting the mainland Japan with (domestic and overseas) colonies. And the coastal area of the East Sea has formed a regional network commerci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connected with the mainland Japan. And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coast of Japan has been developed with such a goal.

- Key words: Russo-Japanese War, Niigata Prefecture, East Sea/Sea of Japan Rim, Karafuto, Petit Imperialism